

MILAL & WORLD

9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7월 25일 포트랭리 시티에서 열린 재즈페스티벌데이캠프에서 밴쿠버밀알 가족들이 멋진 나무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2 | 칼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04 | 2026 밀알의밤 특집

화려한 무대 뒤의 상처, 그리고 ...

06 | 스타 미니스트리를 소개합니다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08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9) 장애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 | 밀알과 함께

밀알 봉사,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12 | 밀알이 바꾼 나의 마음과 시선

봉사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14 | 사랑의캠프의 추억

장애인들의 진정한 축제

16 | 제1회 밀알꿈터캠프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누린 은혜의 향연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7호 | 2026년 9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청춘이 항상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리고 예쁜 아이들이 언제나 그렇게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느꼈던, 서먹하지만 가슴 뛰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설프지만 모든 것이 흥미로웠고, 영화에서만 보던 헐리웃 언덕을 매일 볼 수 있음이 신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복판 올림픽 길을 달리며 행복했습니다.

40대에 만난 밀알선교단은 우리 부부에게 설렘과 보람이었습니다. 모임 전에 들러 어렵사리 픽업하던 중증장애인... 이제는 고인이 되었고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가족들은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나란히 앉아 예배하며 부르던 찬양은 가슴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에게 무관심했던 나를 하나님은 늦깎이 이민을 오게 하시고, 장애인 사역에 처음 발을 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나에게 자상하게 밀알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준 분은 이영선 목사님입니다. 중증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목사님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 보면 장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거목이었습니다. 지금은 LA. 미주복음방송 사장님으로 여전히 현역이십니다.

2003년 7월 10일, LA를 떠나 필라밀알선교단 단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선교단의 상황은 모든 것이 어렵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행히 거대 도시인 LA에서 사역을 배웠기에 한눈에 들어왔고 차분히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며 밀알을 꾸려 나갔습니다. '진실은 통한다'는 일념으로,



만나는 분에게 최선을 다했고, 수시로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들과 진솔한 교제를 나누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희한하게도 부임한 지 꼭 100일 만에 개최한 <제1회 필라델피아 밀알의밤>에 모여온 인파에 놀랐습니다. 덕분에 동포 사회에 밀알선교단의 존재가 알려지며 사역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달렸습니다. 한겨울 오후 4시 30분에 해가 진다는 사실을 사역 17년 만에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9월, 숙원이던 <밀알선교센터>를 장만한 것은 가장 감격적이고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입당감사예배 사회를 보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단에 계시던 이용걸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도 영생장로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장만하였을 때에 이 목사님처럼 감격을 했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쉼 새 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칠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 어쩌다 앨범을 보면 ‘이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세월은 깊었습니다. 시카고밀알에서 누구보다 온 정성으로 장애인들을 돌보던 김산식 목사님과, 1979년 10월 16일. 이제

서 전도사가 밀알선교단을 처음 창립하던 순간부터 47년을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워싱턴밀알을 섬겨 오신 정택정 목사님이 먼저 현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귀하지만, 뉴저지밀알 강원호 단장님, 애틀랜타밀알 최재휴 단장님은 한결같이 밀알과 평생을 함께 해 온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처음 단장으로 부임할 때에 제 나이 47세였습니다. 베이비부머 목사들이 포진해 있는 필라 교계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 곁에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친구로, 동지로, 멘토로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년엔 현역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2027년은 필라밀알선교단이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좋은 후임 단장이 뒤를 이어 필라델피아밀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포들의 여전히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날이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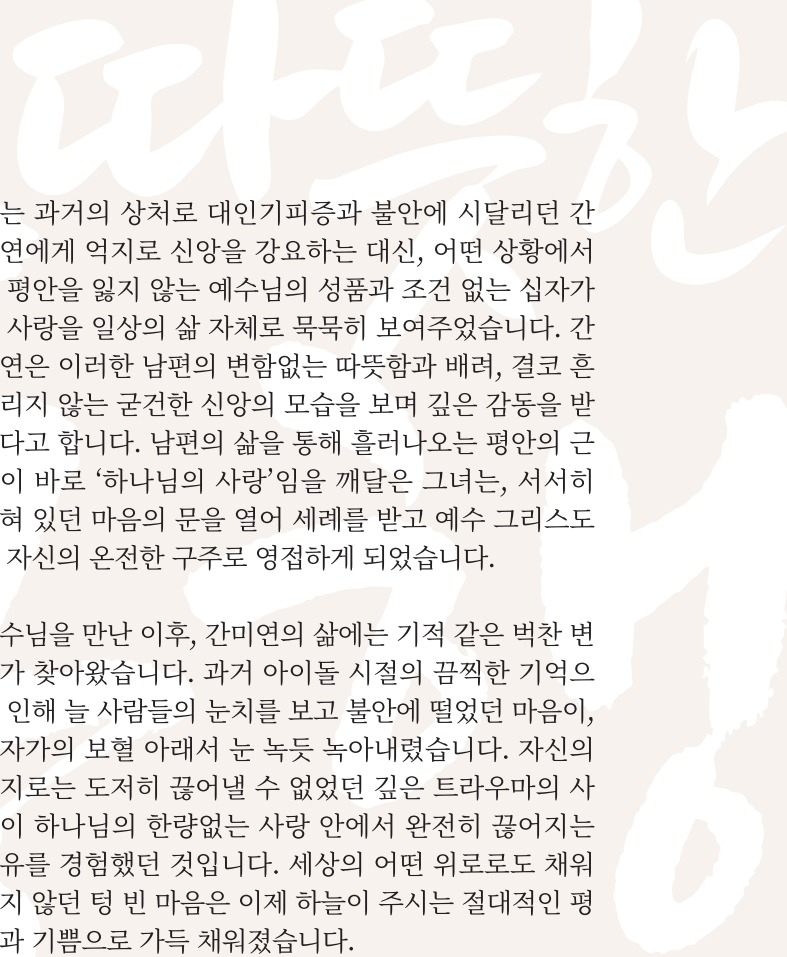
글 | 이재철 목사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 2026 밀알의밤 특집

화려한 무대 뒤의 상처,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찾아온 은혜의 빛



오는 10월, 남가주밀알(9일, 11일)과 워싱턴밀알(17일), 필라델피아밀알(18일), 텍사스밀알(23일), 시카고밀알(24일), 북가주밀알(25일)에서 각각 개최되는 ‘2026 밀알의밤’은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와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간미연’ 집사와 남편 ‘황바울’ 집사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하여 이들 부부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82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난 간미연은, 꿈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놀이공원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걸그룹 ‘베이비복스(Baby V.O.X)’의 멤버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97년 불과 15살의 나이에, 베이비복스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그녀는 ‘야야야’ ‘Get Up’, ‘Killer’, ‘우연’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며 단숨에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내는 물론 ‘1세대 한류스타’로 해외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팬들의 환호 속에서, 간미연의 삶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어린 10대 소녀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비례해, 간미연은 도를 넘은 일부 안티팬들의 무자비한 공격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로 쓴 혈서, 면도칼이 담긴 편지, 심지어 황산 테러와 살해 위협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팬들을 향해 밝게 웃어야 했지만, 무대 아래의 일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으로 얼룩졌습니다. 2006년 베이비복스 해체 이후에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홀로서기에 성공하며 곳곳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원초적인 불안과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상처를 품은 채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에, 마침내 따뜻하고 눈부신 은혜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의 통로는 2019년 부부의 연을 맺은 남편, 뮤지컬 배우 ‘황바울’이었습니다. 본래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간미연에게, 모태신앙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남편과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그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1985년생으로 간미연보다 3세 연하인 황바울은, 2006년 방송 데뷔 이후 다수의 어린이 프로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실력과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모태신앙인

그는 과거의 상처로 대인기피증과 불안에 시달리던 간미연에게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과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일상의 삶 자체로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간미연은 이러한 남편의 변함없는 따뜻함과 배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평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그녀는, 서서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간미연의 삶에는 기적 같은 벅찬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아이돌 시절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불안에 떨었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깊은 트라우마의 사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던 텅 빈 마음은 이제 하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간미연은 상처 입은 과거의 자신을 지나, 세상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으며, 여러 기독교 방송과 간증 집회에 기꺼이 나서서 자신의 굴곡진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끈기 있게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몽클한 감동을 선사했고, 라디오 DJ와 뮤지컬 무대에서도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널리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대학교 뉴케이팍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연한 걸그룹 데뷔부터 시작해 1세대 아이돌로서 누린 최정상의 인기, 그리고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어둠을 지나 마침내 충만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가수 간미연, 그리고 과거의 아픔으로 흔들리던 아내를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남편 황바울... 이들 부부가 이번 밀알의밤 무대에서도 감동적인 공연과 따스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힘겨운 이민생활의 무게에 지친 교포들의 마음에 한줄기 화사한 소망과 위로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글 |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 홍보부)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미미미미~~~” 선생님을 애타게 찾는 원이의 힘찬 목소리로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부서 ‘스타 미니스트리’의 주일은 시작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하는 원이를 보며, 제가 어디서 또 이런 환대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나는 찬양과 함께 율동을 하는 시간...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천국도 이런 모습일까 싶습니다. 신나는 찬양이 끝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할 차례가 되면, 너도나도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친구들이 강단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신앙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도 저처럼 이렇게 기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를 이은 앤드류의 축복송, 데이빗의 축복기도... 순수함 100%인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언제나 저를 감동시킵니다.

스타 미니스트리 봉사를 하기 전, 저는 몇 년 동안 망설이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께 기도한 끝에 드디어 주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고, 저는 스타 미니스트리 부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타 미니스트리 봉사 첫날, 목사님께서 "누구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없지. 누구도 원하지 않지. 그런데 왜...’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타 미니스트리 봉사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친구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

만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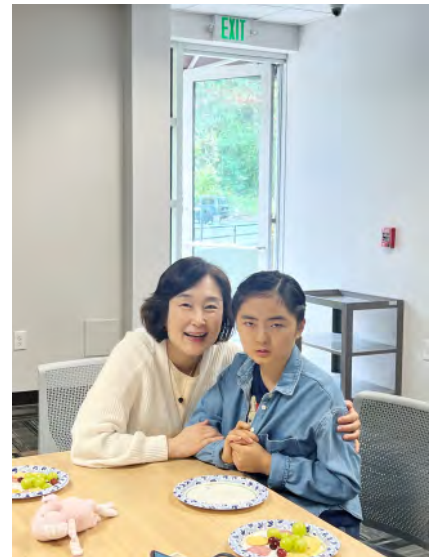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묻은 모든 때가 다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도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 친구들... 그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제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 위에서 씻겨지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스런 친구들은 찬양할 때는 기뻐 춤추며 뛰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할 때면 저마다 앞다투어 나가 믿음을 고백하고, 목사님 설교에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을 외칩니다.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스타 미니스트리 부서입니다.

늘 열심히 살아온 저는 신앙도 저의 열심으로 지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좋아서 온 맘 다해 기뻐 춤추고, 기도할 때면 두 눈을 꼭 감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한 태도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친구를 질투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으며,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너무나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은 이미 그들의 영혼 안에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 미니스트리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매주 친구들에게 믿음의 참모습을 배우는 학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친구들을 통해 배웁니다. 스타 미니스트리는 저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 미니스트리 부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때로 사람을 능력과 조건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타 미니스트리 예배를 통해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늘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을 보게 됩



니다. 가족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친구들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타 미니스트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 | 이수경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부서 '스타 미니스트리' 교사)

스타 미니스트리 봉사를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타 미니스트리 부서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게 가장 기쁘고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스타 미니스트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공동체로 저를 불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섬기시는 스타 미니스트리 선생님들,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매주 저를 반갑게 맞아 주는



장애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돌봄의 대상에서 함께 세워 가는 지체로...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살아온 과정도, 신앙의 연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며,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며 각자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사역’, ‘특수부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 ‘봉사 대상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실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구분이며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분이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까지 결정할 때 생깁니다. 어느 순간 장애인은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라기 보다는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에 속하려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봉사하며 책임을 맡을 때 그 사람의 자리는 분명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역할을 맡기 어려운 사람은 공동체의 주변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기능도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한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고전 12:22). 여기서 ‘약하게 보인다’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약함을 낭만적으로 높이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차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차이를 사람의 가치와 소속을 결정하는 서열로 만드는 일을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돕고, 의사소통을 기다리며, 예배와 교육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공동체에서 덜 중요한 존재라는 판단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만 남으면 장애인에게 계속 받는 사람이 되고 비장



애인은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사역이라도 이런 관계가 굳어지면 장애인도 교회의 일원이면서도 언제까지나 사역의 대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을 교회의 본질과 연결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 온 가치 가운데 무엇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를 묻게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던 공동체는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말이 중심이었던 공동체는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법을 발견하며, 성취와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던 공동체는 무엇을 해내지 않아도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장애인의 가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로 판단하는 셈이 됩니다. 장애인은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며, 다른 모든 성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의 소속 역시 역할을 얻은 뒤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속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자격을 심사하여 구성원을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를 좋은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에만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지원은 필요하지만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으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장애인을 뒤늦게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으로 품으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특별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장애인을 교회의 어느 자리에 놓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부름받아 서로에게 속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특별히 높이라는 구호라기 보다, 사람의 가치를 능력과 역할로 판단해 온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입니다. 그럴 때 장애인은 더 이상 교회가 품어 주어야 할 주변인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때로는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주신 자리를 발견하면서 자신이 어떤 공동체로 부름 받았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밀알 봉사,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 'IN2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안재우'라고 합니다. 일단 올해 2026 밀알 사랑의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준 스태프, 봉사자분들, 밀알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밀알을 섬기기 시작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올해 두번째로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해 봤지만, 장애인 사역은 처음이었기에 두려움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뉴욕밀알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밀알 친구들이 예배 시간 마지막에 올라가서 '은혜'라는 찬송을 열창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밀알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의 뉴욕 생활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라 느끼게 되었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밀알 사랑의캠프는 장애인 친구들이 1년 동안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큰 행사입니다. 캠프는 7월 중순이었지만, 8월이 되자마자 다음 캠프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저도 이 행사의 중요성을 점점



인지하게 되었고, 캠프 날짜가 다가올수록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통 뉴욕밀알 봉사자들은 사랑의캠프에 참여하게 되면 장애인 친구랑 매칭되어 활동을 하지만, 저는 올해 밀알 본부 스태프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또 캠프 도중에도 숨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는지 제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 저 또한 마다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대로 48시간 동안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비록 피곤에 지친 이틀이었지만,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탤런트 쇼를 위해 연습을 하고, 인도어/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한 없이 즐기는 행복한 표정들을 보면서 피곤이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밀알 친구들은 저보다 일상이 훨씬 반복적이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밀알 친구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랑의캠프에서 탤런트 쇼를 제일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뉴욕밀알 친구들의 암송, 킥복싱, 그리고 드럼/기타/보컬 연주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성공적으

로 무대위에서 마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고, 다른 지역들은 어떤 공연을 준비해왔는지 설레면서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의 연습량이 만개된다는 듯이 나오는 박수 갈채가 너무 뜨거웠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친구들의 열정적인 눈빛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밀알을 섬긴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매일 곱씹고 있는 사실은, 밀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사회에 장애인의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밀알에 나오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친구들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잠시동안만 밀알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생 친구가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캠프를 통해 모두가 다시 깨달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꼭 내년 2027 밀알 사랑의캠프 때도 모두 다 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글 | **안재우**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밀알이 바꾼 나의 마음과 시선

봉사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벌써 밀알이랑 함께한 지가 7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제 스스로도 참 많이 성장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곳이 바로 밀알이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친동생이 있기에, 밀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밀알 활동을 이어가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작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그때부터 밀알 봉사를 하는 제 태도가

변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의 안전과 즐거움만을 챙기는 봉사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지에 집중을 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밀알 안에서만 친구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고, 밀알 밖의 세상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세상의 모든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선입견이나 거리감 대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밀알과 함께합니다.

솔직히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밀알에 나가면서 긴 시간

을 투자하다 보면 지치고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밀알에 도착하면, 고작 일주일 만에 만난 것임에도 친구들은 그 일주일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말을 걸어오고, 보고 싶었다며 표현해줍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투정 부렸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아, 이래서 내가 밀알을 계속하고 있지!’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친구들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방학을 시작한 후에, 재즈 페스티벌 데이캠프를 통해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묵묵해서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한 친구가 저희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며 근황을 술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져서,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정말 귀여웠던 그 모습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기억에 잘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재즈 음악을 듣고 즐기는 모습들도 너무나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돌아다

니고, 다른 친구는 하늘을 보고, 또 다른 친구는 가만히 서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이렇게 다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정답이란 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구나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너무도 크시고 많으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는 매우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들이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 당황스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 곁에서 그들이 표현하는 음악과 이야기,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밀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글 | 전미영 (밴쿠버밀알러 2019-9기)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장애인들의 진정한 축제

장애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겨우 2박 3일의 짧고 짧은 그 시간을 장애인들은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몇 십 명으로 시작했던 사랑의캠프가 31년째 접어들며 무려 600 여 명이 운집하는 캠프가 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미주밀알은 모두 22개 지단에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캠프는 6월에 모입니다. 동·중부 캠프는 7월 16일(목)~18일(토)까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매년 버스로 오던 애틀랜타밀알은 금년에는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단장 최재휴 목사님은 모처럼 비행기로 간편하게 캠프에 참석한 것이 너무도 신기해서 싱글벙글 합니다.

그렇게 모여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장애아들은 신나게 찬양하며 춤을 추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강사 '노진준' 목사님의 진솔한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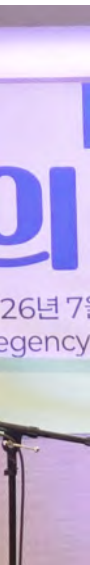
금년 캠프는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밤 믿음캠프(성인)와 사랑캠프(아동)이 연합하여 벌인 '대축제'는 압권이었습니다. 뉴저지 이한창 집사님의 요들송 댄스는 모두가 바닥을 뒹굴며 웃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지단의 재능꾼들이 솜씨를 뽐냈습니다. 뉴저지밀알에서는 유명한 'Sin Seat(죄 의자)'을 연출하여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채춤을 추는 친구, 밴드팀으로 연주하는 그룹, 우리 필라델피아 밀알에서는 '정진우'가 등장하며 멋진 키보드 연주를 하여 1등 상을 받았습니다. '심대니얼'이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의연하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너무도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감동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밀알은 다시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의 손이 좌우로 선을 그리며 멀어져갑니다. 내년 여름 우리는 또 이야기 보따리를 한아름 안고 다시 모일 것입니다. 밀알이 있어 좋습니다. 밀알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글 | 필라델피아밀알 홍보부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누린 은혜의 향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삼복더위에는 역시 삼계탕이 최고지요. 삼계탕 한 그릇으로 속을 든든히 채우고, 2박 3일간 열리는 밀알꿈터 캠프로 향하는 아들의 발걸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한 시간을 달려 밀알꿈터에 도착하니,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초록빛 자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윽고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드려진 예배와 함께 캠프의 막이 올랐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주신 홍익아트 팀, 특히 예쁜 여학생들의 방문에 우리 청년들은 “원더풀!”을 외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작품에 열중하는 그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닭 모이도 주고, 가벼운 몸

풀기 운동도 하며, 저녁 식사를 위한 테이블 세팅도 거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은 후에는 꿈터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돌아보며, 기도방에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신나는 물놀이 시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조건 물세례를 퍼부으며 흠뻑 젖은 채 물놀이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불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군고구마를 먹으며, 서로의 얼굴에 묻은 숯검정을 보고 한참을 깔깔댔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종알거리며 웃음꽃을 피우느라 늦게 잠든 탓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마저 꿈속에서 즐기는 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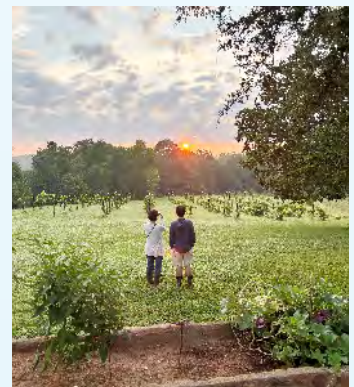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을 먹고 헬렌 조지아의 ‘애나 루비 폭포 (Anna Ruby Falls)’ 트레킹 코스에 올랐습니다. 폭포까지 오르는 경사가 꽤 가팔랐지만,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며 단 한 사람의 뒤처짐 없이 모두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야~호!"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와 싱그러운 초록 잎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말끔하게 산행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이후 독일풍 마을로 내려와 튜빙 계곡을 바라보며 수제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아웃렛 몰로 이동해 각자의 엄마 아빠께 드릴 선물을 고르며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꿈터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다들 노곤하게 널브러져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메뉴인 삼겹살과 소시지 파티에서는 모두가 폭풍 흡입하기 바빴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캠프파이어 시간! 모두가 비장한 전사가 된 듯한 분위기로 불 시위를 당기며, 폭죽과 함께 밤하늘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여름밤의 꿈을 하늘에 수놓으며 캠프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했습니다. 아마도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새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자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들을 어르고 달래 겨우 방에 들여보낸 뒤, 캠프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 후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원래 상태로 정리한 뒤, 골든코럴에서의 풍성한 점심 식사를 끝으로 캠프의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캠프에 동행하며, 세상과 마주하고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안도감과 삶의 터전이 될 꿈터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노심초사의 걱정을 덜어내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참으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땅’, 그곳에서 신을 벗고 온몸과 마음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모든 분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거룩한 땅이 될 꿈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사랑’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다가올 내일까지도 사랑의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며, 그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밀알을 주님의 두 손에 정성껏 올려 드립니다.

글 | **엄명자 사모** (애틀랜타밀알)



| 남가주

2026 밀알의밤 개최

오는 10월9일(금)과 11일(주일) 이틀동안,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와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간미연’ 집사와 남편 ‘황바울’ 집사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하여 ‘2026 밀알의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밀알의밤 주제는 ‘따뜻한 동행’(전도서 4:9~12) 입니다. 프로그램 구성 및 광고, 티켓 판매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익하고 은혜로운 밀알의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일: 토렌스조은교회, 11일: 남가주동신교회) 자세한 내용은 함께 동봉한 2026 밀알의밤 플라이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즈니랜드 방문

‘Brian & Iris Na Foundation’의 후원으로 지난 2년동안 진행된 장애인 가정의 디즈니랜드 방문이 올해도 9월9일(수)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친구들 중에 아직 디즈니랜드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리 친구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매년 디즈니랜드 방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남가주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디즈니랜드에서 여러 재미난 것들을 보고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LA 화요예배 (8월)

4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신성혁 성도님이, 특송은 김득삼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김혜진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8월 생일 잔치도 있었습니다.

18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따뜻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방림 자매님이, 특송은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25일: 송영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윤모세 목사님이, 특송은 김정호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OC 목요일예배 (8월)

6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따뜻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백현집사님이, 특송은 신지혁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8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3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주 안에 서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마이클림 형제님이, 특송은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20일: ‘들리오 워십(DLIO WORSHIP)’에서 밀알을 방문해 한국 전통 국악찬양 공연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랑의교실 (8월)

22일 & 29일: 2주간에 걸쳐 사랑의교실 전 스텝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텝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9월9일에 실시되는 ‘디즈니랜드 방문’과 10월 9일 & 11일에 개최되는 ‘2026 밀알의밤’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 북가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따뜻한 동행을 꿈꿉니다

8월은 북가주밀알이 여름방학의 섬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캠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교실과 화요예배, 밀알의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만남과 섬김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북가주밀알은 2026년 하반기에도 화요예배, 사랑의교실, 사랑방 모임, 장애인예배 협력 사역, 그리고 밀알의 밤을 통해 장애인 가정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 한 사람, 가족 한 가정, 봉사자 한 명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에도 북가주밀알이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가정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사역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화요예배

8월 화요예배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잠시 쉬을 가지며 하반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상반기 동안 화요예배를 위해 식사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지역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가주밀알 화요예배는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가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교회와 성도님

들의 사랑의 섬김 가운데 예배가 이어지고, 말씀과 찬양, 교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교실 봉사자 교육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새소망교회 사랑지기실에서 사랑의교실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사랑의교실을 앞두고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 친구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섬기기 위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교실 봉사는 단순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사역입니다. 한 사람의 봉사자가 한 사람의 친구 곁에 서는 일은 작은 섬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장애인 친구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산호세 사랑의교실은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프로그램과 봉사자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안전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놀이와 교제의 시간을 준비하며, 새로운 봉사자들과 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은 장애인 친구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봉사자들도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산호세 사랑의교실이 더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은 여름방학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방학 동안 집에서 쉬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맛집 탐방, 바닷가 나들이, 영화 관람 등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반기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월 8일 토요일에는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자원하여 사랑의교실을 통해 장애인 친구들을 섬겨 주시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귀한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봉사자로 섬겨 주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형통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8월 15일 토요일에는 ‘밀알 미용데이’가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미용실에 가기 어려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하루를 정해 머리카락을 깎고, 함께 점심을 나누며, 아트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용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신 밀알 가족들, 그리고 점심과 아트 활동으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

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성경읽기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토요일까지 2주간 방학을 갖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습관을 이어 가기를 바랍니다.

밀알의밤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며

북가주밀알은 10월 25일 주일 오후 5시, 새누리교회 본당에서 '2026 밀알의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밀알의밤은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가수 '간미연', 뮤지컬가수 '황바울' 부부와 함께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밀알의밤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 곁에 함께 서 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역교회와 후원자들이 장애인 선교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밀알의밤이 북가주 지역에 따뜻한 동행의 마음을 더욱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 여름방학을 마친 장애인 친구들과 가족들이 건 강한 모습으로 하반기 사역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하반기 화요예배를 통해 지역교회와 북가주밀알이 더욱 하나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산호세 사랑의교실과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에 새로운 봉사자와 교사들을 보내 주시고, 장애인 친구들과 1:1로 동행할 봉사자들이 풍성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8월 29일 사랑의교실 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봉사자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2026 하반기 사역 가운데 장애인 친구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9월 12일에 시작되는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하반기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 밀알 미용데이를 통해 섬겨 주신 봉사자들과 밀알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계속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청년밀알 아트쇼와 하반기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장애인 친구들의 재능과 가능성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10월 25일 새누리교회에서 열리는 2026 밀알의밤 '따뜻한 동행'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수 간미연, 뮤지컬가수 황바울 부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장애인 선교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 가족들과 보호자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돌봄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북가주밀알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더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샬롬!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사랑의교실은 2026년의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사랑의교실 친구들은 여름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랑의캠프를 다녀옵니다. 모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2학기 사랑의교실은 9월 5일(토)에 개학합니다.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에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장영준 목사님 덕에 모두 가서 장아련 사모님이 준비하신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두 두 그릇, 세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점심 후에 맥도날드에 들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현재 SMA는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에 있는 친구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MA는 9월 초에 개학합니다. 2학기에 더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타코마 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2026년 1학기 마지막 모임을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동안에도 TMA모든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남수 가정의 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한국에서도 늘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사랑의캠프 성료

올해 시애틀밀알 사랑의캠프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스탠우드에 있는 웜비치 크리스찬 캠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등록인원은 현재 70명이며, 'Exodus'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프 내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든 여정을 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캠프를 위하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과 교

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장영준 목사는 사랑의캠프를 진행하고, 밀알선교단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 2026 하반기 사랑의교실이 9월 5일에 개학합니다.
- 2026 하반기TMA가 9월 3일에 개학합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心和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와 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 2026년 하반기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9월 5일, 2026/27 학년도 개강을 했습니다. 사랑의교실을 기다리던 친구들이 환한 얼굴로 들어섰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준비된 밀알러들이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단장 이상현 목사님은 사도행전 8:9를 본문으로 "What does it mean to receive the word of God?"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매번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밀알러(봉사자) 리크루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발로터이어를 찾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자원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9-12학년 학생 및 청년, 대학생
- 정보 참고: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 Become a Milaler > Program Milaler
- 신청방법: <https://bit.ly/MilalVolunteer>

아트 페스티벌

8월 1일과 13일에는 리더십 미팅을 갖고, 22일에는 아트 페스티벌을 열어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기 및 게임과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밴쿠버의 밝은 햇살과 시원한 그늘 아래서 함께 즐겁고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류태준&김미숙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밀알러(봉사자) 오리엔테이션

8월 29일 밀알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다른 해보다 한 주를 앞당겨 가진 오리엔테이션에서 봉사를 계속하는 밀알러와 이번에 새로 조

인한 봉사지원자가 함께 유익하고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밀알러들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1일 단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이며,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참조: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 Become a Milaler > Day Mission Milaler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giving@vancouvermilal.com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 밀알가족들,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장애인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며, 그 증인으로 살게 하는 밀알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 11월의 밀알의밤 준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소서..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텍사스밀알 사랑의교실은 2026-27 학기를 준비하며 사랑의교실 참여자와 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다수의 봉사자가 새로 모집되었으며, 새로 참여할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2026-27시즌이 시작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오케스트라 6기 단원 오디션 및 오리엔테이션

Many hearts, One harmony.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선교를 위한 밀알 오케스트라 6기 단원 모집을 마치고 8월 8일 1차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오디션 후 선생님들 회의를 하여 밀알의밤과 2027년 정기연주회의 주제와 곡을 정하였습니다. 8월 15일 1시 30분에 2차 오디션과 오케스트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텍사스밀알선교단의 '밀알의밤'

- 일시: 2026년 10월 23일 (금) 7:30 pm
- 장소: 뉴송 교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 메인 게스트: 간미연 (베이비복스 멤버, 방송인), 황바울 (뮤지컬배우)
- 티켓: \$20
- 티켓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사무실 (267-467-5971)

기도제목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텍사스 내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 지금의 봉사자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셔서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셔서,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합창단원이 모여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새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다음 연주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게 하소서
- 2026년에 계획한 사역이 순전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이뤄지게 하소서
- 2026-27 사랑의교실과 밀알아카데미를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시고, 같이할 봉사자를 보내주소서
- 2027년에 시작하는 '밀알 평생아카데미'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준비하게 하소서, 만남의 길을 여시고, 행정적 시스템을 성경적 틀 안에서 갖추게 하소서, 아카데미에 함께 할 장애인들을 보내주소서

재정보고 2026년 7월

| 남가주

■ **INCOME: \$43,573.30**

Individuals: \$4,784.00 \$24 Missionary Deborah / \$30 Hyoung Seo, Youn G Ro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Jeanne Myung, Jong Soo Kim, June Sin, Sonye Rhym, William Lee, Yeon Hee Park, Zu Kim / \$200 Jaemin Youk, Kyung Won & Sangmi Kang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John & Jae Hyang Lee, Won H. & Song S. Sunu / \$500 Steven Chul Kim / \$1,000 Christopher S Lee, Inju Uyehara

Churches & Businesses: \$11,62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God's Righteousness Church, Rohthem Presby.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ankcard Services,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Bethel Kore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Wisdom Daycare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New Life Evangelical Mission,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he Church of Joy, The Lord's Community Church, The Love Korean Church / \$400 Korean Young Saeng Presby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Sunnyside Presbyterian Church / \$600 All Nations Church, Las Vegas Vision Church / \$87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 \$3,000 East-West Funeral Services Inc.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27,169.30 \$50 Donor Advised Fund / \$6,500 Okjoo Foundation for Tuesday Worship / \$300 Joanne Lee for Class AGAPE OC Lunch / \$15,659.30 Camp AGAPE / \$3,160 Camp Fundraising / \$300 Sign Language Class / \$1,200 Designated for Rent

■ **EXPENSE: \$38,535.69**

Camp AGAPE: \$5,269.17 \$155.05 Camp Banner / \$668.90 Transportation / \$1,913.19 Camp Meals & Snacks / \$1,580.35 Camp Supplies / \$376.04 Pre-camp expenses / \$575.64 Other camp expenses

Media Mission: \$5,904.90 \$3,300 M&W Publication(July & August) / \$1,671.89 Shipping & Handling / \$239.26 PO Box & Return mail / \$693.75 Supplies

Charitable Supports: \$1,000.00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200 Calvary Mission Church Fundraiser for Missionary

Ministry Expense: \$1,589.70 \$267.70 Shimbang / \$1,322 Volunteer Workshop (LA & OC)

Fundraising Expense: \$6,380.00 Merchandise

Payroll Expense: \$9,221.62 \$5,803.66 Salaries & Wages / \$483.21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8,115.17 \$5,011.23 Rent / \$61.03 Woongjin / \$332.25 FBM / \$113.16 Telephone & Internet / \$345.94 Electricity / \$46.32 Office Supplies / \$50 Repair & Maintenance / \$40 Dues & Subscription / \$817.26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1,000 Legal & Professional / \$84.98 Office Meals / \$213 SBA EIDL Interest

Auto Expense: \$1,055.13 \$935.13 Gas / \$120 Maintenance

Transfer Funds to Scholarship Account \$5,000.00

Previous Carry over Balance: \$49,922.1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49,959.80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6,800.00 <Churches & Businesse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6,200: \$1,000 Designated to Lee Family / \$200 Milal Night Brochure Ads / \$5,000 Milal Night Contribution>

EXPENSE: \$24,120.25 <Class AGAPE \$9,354: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4,766.25: \$1,800 Collegians / \$1,000 Designated Scholarship / \$1,000 Third countries / \$10,0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Transfer Funds from General Account: \$5,000.00

Previous Carry over Balance: \$46,068.34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33,748.09

| 북가주

■ **INCOME: \$15,419.42**

Individuals: \$3,200.00 \$50 김성준, 김신자, 김애경, 김영, 박노숙, 이우성 / \$100 Klepeis Family, 강원모&김유진, 김만종&정애, 이석권&정찬미 / \$200 최영훈&재현 / \$300 김정기&남경아, 레이첼 가정, 오영수 / \$400 이학천\$지선 / \$500 정소라가정, 차현상&은미

Churches & Businesses: \$5,983.42 \$100 브루스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트레이시주은혜교회 / \$200 Luxe Apparel & Gift, The Light of Christ Church, 주순길교회 / \$300 심포니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 \$400 임마누엘장로교회 / \$450 상향반석교회 / \$600 SF사랑의교회 / \$1,500 몬트레이한인침례교회 / \$1,533.42 AOGF

Designated Donation: \$6,236.99 <사랑의교실 \$750: \$100 김정기&남경아 / \$150 베델연합감리교회 / \$200 안수빈가정 / \$300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 \$430: \$100 김정기&남경아, 이강진&권유진 / \$230 전송화> <사랑의캠프 \$5,056: \$1,800 캠프참가비 / \$3,256 펀드레이징수익금>

■ **EXPENSE: \$17,991.65**

Mission Expense: \$13,334.82 사례비(5인) \$7,316.30 / 선교활동비 \$359.43 / 미주밀알지원 \$701.11 / 은급비 \$300 / 화요예배 \$382.13 / 사랑의캠프 \$4,275.85

Admin. & Management: \$2,214.45 유틸리티 \$171.58 / IRS Tax \$492.87 / 사무실임대료 \$1,400 / 20262Q회계 \$150

Auto Expense: \$1,180.83 유류비 \$135.54 / 세차 \$38.48 / 타이 어교체 \$1,006.81

Media Mission: \$1,261.55 밀알&세계발송비 \$384.41 / 밀알&세
계인쇄비 \$877.1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1,570.26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8,998.03

| 시애틀

■ **INCOME: \$17,180.00**

Individuals: \$3,010.00 \$30 남숙희, 남숙희 / \$50 이영자, 조성
배, 박진경 / \$100 경자흔, 오수미, 노현숙, 윤태준&이정주, 김해정,
황영자, 류준명, Peter Yoo / \$150 김복조 / \$390 Tae K Yang /
\$460 장영준&장아련 / \$1,000 이명운

Churches: \$3,2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
링햄화평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덴동산교회, 목양감리교
회, 순복음 큰빛교회(X2) / \$150 페더럴웨이 뱅앨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시애틀은혜장로교회, 낮은울타리
교회, 선한이웃교회, 타코마연합장로교회 / \$400 시애틀 평강장로교
회 / \$500 시애틀 먼저사랑교회

Businesses: \$400.00 \$300 Fair Ridge Law Firm / \$100 임학수
CPA

Designated Donation: \$10,520.00 \$100 SMA & TMA(\$100 회
비) / 사랑의캠프 \$10,420(\$420 회비, \$10,000 캠프후원)

■ **EXPENSE: \$29,290.14**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708.93 / Media Mission \$1,356.28 / Class AGAPE \$1,306.93
/ 상회비 \$488.40 / SMA&TMA \$1,259.25 / Outreach & Retreat
\$1,000 / Tax \$481.60 / Special event \$343.73 / Agape Camp
\$16,666.32 / Insurances \$174.78 / Pastoral Visit \$375.48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96,679.6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4,569.53

| 밴쿠버

■ **INCOME \$9,075.00**

Individuals: \$75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혜영, 이재림 / \$100 이상현
&유혜정 / \$200 하준석, 김석정

Churches & Businesses: \$3,800.00 \$100 헤브론교회(#7686)
/ \$300 삼성교회 / \$200 Oronia, WJD Foundation / \$1,200 은혜
의교회(3/4분기) / \$1,800 밴쿠버순복음교회(#999 전반기)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4,525.00 <사랑의교실
\$3,200: \$50 오정식, 강향숙 / \$100 곽혜경 / \$3,000 김계은> <함께
걸음콘서트 티켓 \$500: 이경창회계사무소> <재즈 페스티벌 데이캠
프 \$325: 참가비> <designated 500: 코람데오>

■ **EXPENSE: \$9,873.08**

Payrolls: \$3,654.79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5.78 활동비

Events: \$222.00 재즈 페스티벌 데이캠프 런치

Class AGAPE: \$613.73 <Happy Together Class> 통신비
\$61.60 / 줌사용료 \$83.42(7월) / 리더십 리트릿 \$218.45 / 줌사용
료(25년 9-11월분 미지급금) \$250.26

Admin & Management: \$3,174.51 <General \$1,174.51: 통
신비 \$67.20 / 은행피 \$11 / 우편료 \$18.31 / 회계사비 \$1,050/ 찻지
피티 구독료 \$28> <비품구입 \$2,000: 맥북>

Taxes: \$553.37 payroll(7월)

Auto Expense: \$1,148.90 운행비 \$300.88 / 뱅보험
\$203.71(8회차) / 뱅패이먼트 \$644.31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7,622.9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6,824.90

| 텍사스

■ **INCOME: \$6,401.03**

INDIVIDUALS: \$74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
&이선화, 김희경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340 박진
영

CHURCHES & BUSINESSES: \$1,756.03 \$6.03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나눔교회, 빛과소금의교
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라이프교회 / \$300
주님의교회 / \$600 참빛교회

DESIGNATED DONATION: \$3,900.00 <사랑의교실: \$100
NORRIYA LLC./ \$200 김병윤, 무명 / \$500 FENY / \$2,420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송미령, 구본진 /
\$80 VBS등록비> <직업재활: \$200 세미한 Beanyard coffee>

■ **EXPENSE: \$6,218.31**

MISSION EXPENSE: \$4,507.35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05 / 지단상회비 \$194.44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지역교회방문 \$34.64 / 조의금
\$200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22.49 VBS 준비

ADMIN & MANEGEMENT: \$1,688.47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 재정관련수수료 \$45.94 / 통신비 \$100 / IRS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305.60 / Insurance \$100 / Utility
\$265.43 / 우표구입 \$82 / CPA 수수료 \$1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9,976.5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0,159.27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월레기도모임	매월 마지막 화 오후 7:30	Zoom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일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



2026 밀알의밤

간미연 · 황바울

(베이비복스) (뮤지컬 배우)

부부와 함께

남가주

일시 & 장소: 10월 9일(금) 오후 7:30 | 토랜스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일시 & 장소: 10월 11일(주일) 오후 6:00 |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워싱턴 D.C.

일시 & 장소: 10월 17일(토요일) 오후 6:00 | 워싱턴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 Silver Spring, MD 20906)

문의: 워싱턴밀알선교단 Tel: 240-550-0771 | Email: milalusa@gmail.com

필라델피아

일시 & 장소: 10월 18일(주일) 오후 5:00 |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문의: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Tel: 215-833-807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텍사스

일시 & 장소: 10월 23일(금) 오후 7:30 | 뉴송교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Tel: 267-467-5971 | Email: txmilal@gmail.com

시카고

일시 & 장소: 10월 24일(토) 오후 6:00 | 레익뷰언약교회 (950 Northbrook Av, Northbrook, IL 60062)

문의: 시카고밀알선교단 Tel: 847-877-4202 | Email: chimil94@gmail.com

북가주

일시 & 장소: 10월 25일(주일) 오후 5:00 |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1250 W Middlefield Rd, Mountain View, CA 94043)

문의: 북가주밀알선교단 Tel: 408-605-2134 | Email: ncmilal@gmail.com